



조코비치, 드레이퍼에 역전패 BNP 파리바오픈 16강서 탈락  
노바크 조코비치(3위·세르비아)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P 파리바오픈 단식 16강에서  
잭 드레이퍼(14위·영국)에게 1-2(6-4 4-6 6-7(5-7))로 역전패했다.

# 친남매 같은 호흡으로 16년 메달 갈증 씻다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백혜진 - 이용석  
동계 패럴림픽 결승서 중국에 아쉽게 저  
서로 보완하며 1년 만에 기량 급성장  
“4년 뒤엔 반드시 금메달 따고 싶어요”

금메달 못 딴 게 아쉬워 혼자 안 울었다는  
누나 백혜진과 메달이 마냥 감격스럽기만  
한 동생 이용석.

성격은 판판이지만 빙판 위에서만큼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두 남녀가 한국  
휠체어컬링의 16년 묵은 메달 갈증을 씻어  
냈다.

백혜진-이용석 조(이상 경기도장애인체  
육회)는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코르티  
나 올림픽 컬링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  
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휠체  
어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 결승에서 중  
국의 왕명-양진차오 조에 7-9로 석패해 은  
메달을 목에 걸었다.

비록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지는 못했  
지만, 한국 휠체어컬링은 2010년 밴쿠버  
대회(혼성 4인조 은메달) 이후 16년 만에  
패럴림픽 메달 맥을 잇는 쾌거를 일궜다.

경기를 마친 뒤 만난 백혜진은 “우리 팀  
은 감독님과 용석이, 남자들만 울었다”며  
“저는 금메달을 못 딴 게 아쉬워서 눈물은  
안 난다”고 웃어 보였다.

그 옆에서 이용석은 싱글빙글 웃으며  
“목에 은메달을 걸고 있지만 실감이 나지  
않는다. 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하다”고 좋  
아했다.

백혜진과 이용석은 팀을 이룬 지 약 1년  
만에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시상대에 올랐  
다. 그 비결은 남매나 다름 없는 ‘환상의 호  
흡’에 있다.

누나만 셋인 집안의 막내 이용석은 백혜  
진을 “정신적 지주”라 부르며 따르고, 역시  
세 자매 아래에 남동생이 있는 백혜진은 이  
용석을 “친동생 같은 존재”라고 정의했다.

이용석은 “저희는 항상 경기에 들어갈



백혜진(오른쪽)과 이용석이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 올림픽 컬링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걸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다”며 “누나가 제게  
‘용석이 너는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고,  
저도 ‘누나도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한다. 그  
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백혜진도 “용석이가 성향이 좀 순하고,

샷도 잘하다 보니까 제가 감정적으로 기분  
이 조금 올라왔을 때 많이 잡아준다. 서로  
서로 보완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 맞는 것  
같다”고 했다.

패럴림픽이라는 큰 무대를 거치며 팀워  
크는 한층 단단해졌다. 백혜진과 이용석은

벌써 4년 뒤 다음 대회를 기약하고 있다.

이용석은 “나는 항상 누나와 함께하는  
것이 좋고 편하다. 다만 누나가 다시 나를  
선택해 줄지는 모르겠다”며 옆에 있던 백  
혜진을 바라봤다.

이에 백혜진은 웃으며 “이제는 이용석과  
의 호흡에 익숙해졌고 믹스더블 작전 성향  
도 완벽히 파악했다”며 “남편이 조금 서운  
해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도 이용석을 파  
트너로 택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은메달을 넘어 다음에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혼성 4  
인조 종목에서도 메달을 추가하고 싶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날 승리는 ‘스승과 제자’의 기록 대물  
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밴쿠버 당시 은메달 주역이었던 박길우  
대표팀 감독은 이번 대회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메달을 일궜다.

박 감독은 “저희가 이 험한 파도를 넘어  
서 여기까지 왔다”며 “선수들은 오늘 최선  
을 다했고,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줬다.  
실력이 아니라, 단 1%의 운이 저희에게 없  
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감정적인 사람인 줄 몰랐는  
데 오늘은 눈물이 났다”며 “아까 경기를 마  
치고도 눈물이 났고, 선수들이 메달을 받을  
때도 울컥했다”고 감격스러워했다.

이날 눈물을 흘린 건 박 감독뿐만이 아니  
었다. 선수들을 묵묵히 뒷바라지해 온 윤경  
선 대한장애인컬링협회 회장도 현장에서  
기쁨의 눈물을 글썽거렸다.

윤 회장은 “백혜진 선수가 나를 ‘올보 회  
장님’이라고 부른다. 어제는 울 것 같아 일  
부러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며 “오늘도  
눈물을 참으려 노력했지만, 그저 너무 행복  
하고 즐겁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마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 기쁘  
다”며 “임기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으  
나 남은 기간에도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  
다”고 약속했다.

연합스

## 이강인 교체 출전 PSG “UCL 8강 예약합니다”

16강 1차전서 첼시에 5-2 대승  
R 마드리드는 맨시티 3-0 완파  
보되/글림트도 스포르팅에 3-0

이강인을 후반 교체로 투입한 프랑스 프로  
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이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첫 경  
기에서 첼시(잉글랜드)에 대승을 거뒀다.

PSG는 12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2025-2026  
UCL 16강 1차전 홈 경기에서 흐비차 크바  
라츠헬리아의 멀티 골 등에 힘입어 첼시를  
5-2로 완파했다.

지난 시즌 창단 첫 UCL 우승을 차지했  
던 PSG는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  
했다. PSG는 지난해 7월 국제축구연맹  
(FIFA) 클럽 월드컵 결승에서 첼시에 패  
했던 아쉬움도 털어냈다.

3시즌 만에 UCL에 복귀한 첼시는 18일  
안방인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리는 2차전을 앞두고 부담이 커졌다.

PSG의 이강인은 벤치에서 시작해 후반  
24분 우스만 데멜레 대신 그라운드를 밟아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는 페데  
리코 발베르데의 ‘원맨쇼’를 앞세워 맨체스  
터 시티(잉글랜드·이하 맨시티)를 제압하

고 8강에 성큼 다가섰다.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  
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16강 1차전  
홈 경기에서 홀로 3골을 책임진 발베르데  
의 활약에 힘입어 맨시티를 3-0으로 완파  
했다.

2023-2024시즌까지 UCL에서 역대 최  
다 15회 우승을 달성한 레알 마드리드는 6  
년 연속 8강 진입의 청신호를 켜다.

2년 만에 UCL 16강에 올랐으나 탈락 위  
기에 몰린 맨시티는 18일 2차전 홈 경기에  
서 반격을 노린다.

처음으로 UCL 본선에 참가해 16강에 진  
입한 노르웨이의 보되/글림트는 홈 1차전

에서 스포르팅 CP(포르투갈)를 3-0으로  
제압하며 8강을 눈앞에 뒀다.

인구 5만4000여 명의 노르웨이 북부 보  
되를 연고로 둔 보되/글림트는 이번 UCL  
리그 페이지에서 맨시티를 3-1, 아틀레티  
코 마드리드(스페인)를 2-1로 격파해 16  
강 진출을 위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바  
있다.

플레이오프에선 이탈리아의 명가 인터 밀  
란마저 따돌리며 유럽 축구의 거함들을 줄  
줄이 꺾었고, 16강에서도 돌풍을 이어갔다.

아스널(잉글랜드)과 레버쿠젠(독일)은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1차  
전에서 1-1로 비겼다.

연합스